〈論文〉

민족의 비극과 저항에 관한 이야기: 홍명희의 삶과 『임꺽정』 *

홍 원 표
한국외국어대학교

Ⅰ. 들어가기: 조선의 정조 (情調)

인간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투쟁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인간조건 속에서 삶은 비극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모겐소) . 이성적인 개인과 비이성적 세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부조리세계 (까뮈) , 죽음 · 고통 · 행운과 같은 한계상황에 놓인 인간 (야스퍼스) ,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중간적 존재이기에 인간의 삶은 비극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투쟁한다. 저항적 지성인 벽초는 사멸하는 조선을 목도하면서 무엇에 대해 고뇌했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벽초 (碧初) 홍명희 (洪明熹, 1888～1968) 는 『임꺽정』에서 연산군 · 중종 · 인종 · 명종 시기 조선과 조선인의 삶을 재현하였다. 비극의 주인공이 된 임꺽정은 일본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저항적 인간으로 묘사되었는가? 아니면 시대의 실패작으로 이해되었는가? 벽초는 임꺽정만을 비극적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선을 비극적 영웅으로 묘사하고자 임꺽정을 매개로 하고 있는가?

벽초는 조선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무엇을 실질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는가? 벽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세계와 거리를 두면서도 이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는 작가로서 조선의 정조를 되살리고자 했다. 벽초의 삶과 『임꺽정』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여러 편의 홍명희 전기뿐만 아니라 『임꺽정』에 관한 수많은 논문이 출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벽초 홍명희에 관한 '선행 연구들'[1]을 기반으로 하되 근현대 한국 지성사의 흐름 속에서 벽초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탐색한다. 무엇보다도, 홍명희는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당시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였고 민족의 사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행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어떠한 행위양태를 드러냈는가를 고찰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식민지 시대 홍명희의 사상과 행위의 궤적에 대한 조명은 근현대 한국 지성을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홍명희의 삶의 궤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운명을 홍명희 집안 (집단) 의 운명을 연계시키되 홍명희 (개인) 를 그 중심에 두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연대기적 기술에 기반을 두되 벽초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상이한 시대를 중첩시킨다. 예컨대 연산군～을묘왜변 시기의 조선과 식민지 시대 조선을 '역사적 현재'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둘째, 식민지 시대 조선의 실천적 지식인들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주적 근대화, 즉 자주독립과 국민국가 건설이란 목표를 위해 어떤 실천 이념을 제시하고자 했는가를 밝힐 필

요가 있다. 이 문제를 조명하는 출발점과 종착점으로 '신간회'의 어원인 고사성어 '신간출고목(新幹出枯木)'으로 삼고자 한다. "마른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문구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벽초는 '마른 나무'로 비유되는 조선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신간회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전통이 국가와 사상의 근간이 된다"는 신념에서 조선의 정조(情調)를 부각시키고자 했다.[2]

셋째, 홍명희는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식민주의 세력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언행의 일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벽초는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한 저항적 정치행위자이면서 『임꺽정』을 쓴 작가로서 언행의 일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특정한 시대를 대변하는 지성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언행의 일치를 발견하는데, 이 연구에서 조명하는 '지성'은 시대의 어둠 밝히고자 했던 저항적 인간이지 위대한 사상체계 또는 작품을 남긴 인사들은 아니다.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이들은 아렌트의 문구를 원용하자면 "생애 중에 시대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국과 도덕적 절망을 공유했다" (아렌트 2010, 7) . 식민지 시대 벽초와 더불어 삼재로 평가받았던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이 지성사 대계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지성의 생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실천과 정신활동의 일치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벽초는 식민지 세력에 어떤 입장을 취했으며, 어떤 조직 활동을 통해 실천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수많은 민족운동단체 및 참여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벽초는 왜 좌우를 넘어서 다양한 민족운동단체에 참여했는가? 벽초는 왜 민족개량주의와 타협하지 않았는가? 벽초는 『임꺽정』에서 이를 어떻게 재현하고자 했는가? 벽초는 국가가 사멸한 시대에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임꺽정과 화적패를 작품의 핵심 인물로 부각시키면서 무엇을 의도했는가?

이 연구는 식민지 시대 홍명희의 삶을 『임꺽정』과 연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에 『임꺽정』 집필 이후의 삶과 해방 이후 행적을 조명하고 있지 않다. 지성사 연구에서 한 개인의 생애에 대한 시기 구분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홍명희의 생애를 네 시기로 나누어 조명하고 있으며, 이후의 삶에 대한 조명은 별도로 보완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시대 현실세계를 어떻게 이해하였고 이에 대항하고자 드러냈던 행위 목표, 실천 전략, 행위 양태 등을 통해 근대 지성으로서 홍명희를 조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Ⅱ. 조선의 사멸과 벽초 집안의 영락 (1888~1912)

홍명희는 신간회를 결성하면서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의미의 '신간출고목(新幹出枯木)'이란 고사성어에 착안하여 단체의 명칭을 붙였다. 이 고사성어는 근대 지성으로서 홍명희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 씨실이며 날실이다. '신간'은 새로운 생명체를, '고목'은 죽은 사물을 상징한다. 홍명희는 사멸하는 조선, 사해 (死骸) 상태의 양반계급, 그리고 부친 홍범식의 순국 (殉國) 과 집안의 영락을 경험하였다. 사멸 · 사해 · 순국 · 영락으로 표현되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죽음'에 대한 거부는 홍명희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홍명희는 삶과 죽음의 역설을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이 체험했다.

조선의 사멸에 대한 홍명희의 입장은 1936 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기사 가운데「양반」과「이조 정치제도와 양반사상의 전모」에 잘 나타나고 있다. 홍명희는 조선의 양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조선 역사의 이해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양반계급의 역사를 4 기로 구분한다. 홍명희에 따르면, 제 1 기는 고려 말부터 선조 때 동서당론이 나기까지 약 200 년간이며 양반계급의 "발달시기"이다. 제 2 기는 선조 때부터 영조 초 탕평책을 시행할 때까지 160~170 년으로 "당쟁시기"이다. 제 3 기는 영조 때부터 갑오경장까지 150~160 년간으로 "퇴패시기"이며, 제 4 기는 갑오경장 이후이다.

> "500 년간의 조선의 역사는 곧 양반계급의 역사인지라 먼저 양반계급의 특질을 계급적으로 구명치 않고서는 그 역사를 이해키 어렵다. 역사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은 필요하거니와 그 역사의 시종 (始終) 을 체계 있이 파지 (把持) 하려는데 있어서는 더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3]

> "곧 말기이니, 구문화의 붕괴와 외세의 압박이 서로 착종한 중에 선진 국가의 사회제도가 수입되어서 양반계급은 사해 (死骸) 가 되고 말았다."[4]

홍명희는 「양반」에서 사화를 "일시적인 좌절 단련으로서 계급 성장 중 현상"으로, 당화 (黨禍) 를 "반영구적 분열 알력으로 계급 성장 후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렇듯 벽초는 양반계급의 역사에서 붕당과 지방열을 민족의 위기, 나아가 민족의 사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규정했다. 『임꺽정』은 연산군에서 을묘왜변에 이르는 시기 (1498~1555 년) 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사화는 성종 이후 성장한 사림 세력이 훈구 세력의 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임꺽정』은 1928 년부터 1939 년에 이르기까지「조선일보」에 네 차례에 걸쳐 연재되었고,「화적편」의 '자모산성' 장이 1940 년 『조광』지에 게재되어 미완의 상태로 중단되었다. 벽초는 『임꺽정』 제 1 권 「봉단편」에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전개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먼저 이야기가 생긴 시대"를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태조 이래 성종에 이르기까지 실덕은 없었지만 태평성대의 한 가지 흠절인 폐비사건"은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홍명희는 『임꺽정』의 '자모산성' 장에서 임꺽정 화적패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의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세력의 토벌은 죽음과 연계된다. 홍명희는 여기에서 조선의 사멸을 이야기하고자 했는가 아니면 다른 의도를 드러내고자 했는가? 홍명희는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화적패의 죽음, 조선의 사멸에서 새로운 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바로 조선의 정조이다.

홍명희는 조선의 정조가 퇴조한 원인을 양반계급의 붕당과 지방열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홍명희는 당쟁의 원인을 "유학사상의 특징"에서 찾거나 "분열을 일삼는 조선인의 민족성 탓"으로 돌리는 식민주의 사학의 왜곡된 주장에서 탈피하여 "관직 수의 제한에 반한 양반 인구의 증가"

를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으며, 양반계급의 몰락을 양반계급의 생활이념에서 찾았다. 이러한 비판은 양반계급이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 "물론 인을 떠난 예와 의는 유자의 사상으로서 비판하더라도 허례와 허의로 돌아가기 쉽다. 양반의 예절과 의리도 많은 경우에 있어 형식에 흐르고 말았다. 그러나 양반사상의 핵심이 관벌주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은 도리어 필연한 형세다. 즉 의리는 그들의 목표를 세우기 위하여, 또 그와같은 예정은 그들의 위의를 보장키 위하여 필요한 이외 아무것도 아닌 까닭이다."[5]

그런데 명문 양반 출신인 홍명희 집안은 왜 사멸하는 국가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가? 조선의 사멸이 양반계급의 몰락과 연계되지만, 양반계급의 몰락이 한 집안의 영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벽초에 따르면, 양반계급의 지조는 한 집안의 영락을 초래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집안을 지탱하고 나아가 민족의 생존을 보존하는 생활이념이다.

> "지조: 첫째 그들은 빈한을 견디고 재화를 천히 아는 것이 한 가지의 지조니, 양반이 땅을 사고 돈을 만지는 것은 훗에 이르러 타락한 행동이며, 둘째 곤고를 감심하며 비열을 피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지조니, 관벌주의와는 모순됨에 불구코 권문세가에 출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며, 셋째 자중자대하여 경조부박을 경계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지조니, 일거수일투족이라도 정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넷째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질지언정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지조 중에도 가장 높은 지조니, 조선서는 절사와 순사를 가장 높이 여기어 왔다."[6]

앞에서 인용한 내용은 벽초가 1930년대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제 사멸하는 조선에서 벽초 집안의 비극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다. 홍명희는 조선 시대 10 대 양반 명문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왜 양반계급으로서 자신의 생활이념을 유지하면서도 양반계급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는가? 그리고 양반계급의 '사해'와 조선의 '사멸'을 같이 연계시키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홍명희 집안의 역사 (가족사) 를 조명하고, 이어서 홍명희의 유년시절, 결혼, 그리고 유학시절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홍명희의 가문은 고려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국학직학 (國學直學) 을 지낸 후 풍산 (豊山) 을 관향으로 삼게 된 홍지경 (洪之慶) 을 시조로 하며 사정공계 추만공파 (秋巒公派) [7]에 속한다. 조선 시대 풍산 홍씨의 주요 인물들로는 선조의 부마인 홍주원, 정조의 사부였던 홍상한,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한, 정조 때 영의정인 홍낙성, 정조 때 홍양호와 홍국영, 문장가인 홍석주 (洪奭周) 등이 있다. 풍산 홍씨는 대체로 당색을 보면 노론 계열에 속한다.

홍명희의 직계 조상들은 고조 홍정주 (洪定周) 이며 증조는 홍우길 (洪祐吉) 이다. 홍우길은 1856 년 중광 문과에 장원 급제한 뒤 대사성 · 관찰사 · 한성부 판윤 · 대사헌 · 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홍명희의 조부 홍승목 (洪承穆) 은 홍우필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홍우길의 양자로 들어갔으며 대사간 · 대사성 · 형조와 병조 참판 등을 거쳐 1906 년 중추원 찬의 (贊儀) 를 역임했다. 홍명희의 부친인 홍범식은 홍승목의 장남이고 유일한 적자로서 1888 년 성

균관시에 급제한 후 내부주사 (內部主事) , 혜민원 참서관을 거쳐 1907 년 태인 군수로 임명되었으며 1909 년 금산 군수가 되었다. 이처럼 홍명희 집안은 조선 말기에 이르러 명문사대부 집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홍명희 집안은 대대로 서울의 북촌에 거주하다가 증조인 홍우길 대인 1860 년경에 충청북도 괴산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홍명희 일가는 괴강 (槐江) 이 흐르는 마을인 제월리에 거주하였으나 생가는 인산리이다. 홍명희는 1888 년 홍범식 (洪範植) 과 은진 송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세 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이듬해 한양 조씨와 재혼한 홍범식은 성희 (性熹) · 도희 (道熹) · 교희 (敎熹) 세 아들을, 인희 (仁熹) · 숙희 (叔熹) 두 딸을 두었다. 이복형제들은 3·1 운동, 시대일보사 경영, 신간회 운동에 동참하여 홍명희를 도왔다.

홍명희는 세 살 되던 해에 어머니의 별세로 증조모 평산 신씨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린 시절 홍명희는 한학수업을 받았다. 홍명희의 자서전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입학한다고 비로소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도 조부가 종이 쪽에 써주는 것으로 '천지일월 부모형제 (天地日月 父母兄弟) ' 같은 글자는 벌써 알았었다. .... 나의 눈에서 어머니 생각하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창승연년생 오모하부귀(蒼蠅年年生 吾母何不歸)'[8] 다섯 자를 모든 것이 말하자면 나의 한시 짓기 시작이다. 그러나 운을 달 줄 알고 고저를 볼 줄 짐작하기는 열한두살 된 두의 일이었다."[9]

홍명희는 아버지가 시회 (詩會) 를 열 때 「영설 (詠雪)」이란 제목의 5 율시를 지었으며,[10] 부모처럼 키우다시피 한 대고모 집에서 『삼국지』를 독파하였다. 그 후 홍명희는 『논어』나 『맹자』보다 『동주열국지』, 『서한연의』,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 등을 탐독하였다. 홍명희는 『임꺽정』에서 조선의 정조를 내세웠지만, 중국소설과 『임꺽정』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11]

홍명희는 열세 살 되던 1900 년 참판 민영만의 딸과 결혼하였다. 장인 민영만은 민영환 · 민영달과 육촌간이다. 홍명희와 부인 민씨 사이에는 기문 (起文) · 기무 (起武) · 기하 (起夏) 세 아들이 태어났다. 기하는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루고 나온 직후 사망했다. 그 후에 홍명희는 쌍둥이 딸인 수경과 무경 그리고 막내딸 계경을 두었다.[12]

홍명희는 결혼 이듬해인 1901 년 중교의숙 (中橋義塾) 에 입학하였다. 중교의숙은 갑오개혁 이후 "군부대신을 지낸 수구파의 거물 민영기가 일본어 · 영어 · 한문을 가르치기 위해 1899 년에 세운 시무학교를 이조판선 심상훈이 인수하면서 개명하였고, 특권계급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종로구 중학동 소재 학교이지만 1906 년에 폐교되었다. 당시 조부 홍승목은 궁내부 특진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부친 홍범식 역시 내부주사로 임명되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때는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조부와 부친은 홍명희에게 신교육을 받게 하였다. 홍명희는 만 삼년 동안 일어과에서 공부하였으며, 졸업 후 괴산으로 귀향하였다.

귀향 후 홍명희는 『춘추』를 읽으면서 지내던 중 양잠기술을 전수하던 일본인 부부를 만나게 되어 일본에 갈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혜민원 참사관으로 있던 부친 홍범식은 1906 년 초에 벽초에게 일본 유학을 허락하였다. 벽초는 토쿄 상법학교 예과 2 년에 편입하여 진학준비를 한 후 1907 년 대성 (大成) 중학교 3 학년에 편입하여 학업을 하는 동안 조선 문단 제일의 다독가로 손꼽힐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두루 탐독하였다. 벽초는 당시 러시아 문학 작품, 영국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의 작품을 애독하였다.

홍명희는 유학 시절 후일 민족사학자이자 언론인이 된 호암 (湖巖) 문일평 (文一平) , 일진회 유학생의 한 사람으로 선발되어 도일한 춘원 이광수, 그리고 육당 최남선과 교분을 맺었다. 이 시기에 홍명희는 재일 조선인 유학생 단체인 대한흥학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한흥학보』에 몇 편의 글을 기고하여 최초의 사회활동과 문필활동을 시작하였다. 대한흥학회에는 채기두 (菜基斗) · 최린 · 허헌 · 조용은 · 김진용 등이 참여하였으며, 벽초는 편집부의 일원으로 『대한흥학보』 편집에 참여하였다. 벽초는 여기에 실린 6 편의 글들에서 민족의 위기의 원인을 골육상쟁, 즉 붕당과 지방열 (地方熱) 로 규정하였다. "홍명희는 민족의 대동단결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지방열을 들고, 이러한 지방열이 성행하게 된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진세력을 견제하려 하거나, 반대로 오랜 차별과 정치적 소외로 인한 원한을 풀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보았다"(강영주 1999, 61) .

홍명희는 대성중학교 재학 당시 성적이 출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왜 그랬을까? 이 시기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명희 도일 직후인 1905 년 11 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듬해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가 초대 총감으로 부임했다.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뒤 1907 년에는 정미 7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1909 년 사법권이 통감부로 넘어감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반일의병투쟁이 전개되었다.

벽초는 일본 유학 시절에 강제로 해체되어 가는 '나라' 조선의 실상을 똑똑히 목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벽초는 "무언가 더욱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에 내몰린 끝에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하고 만 것이다" (강영주 1999, 72) . 벽초는 1910 년 2 월 귀국 후 주로 괴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1907 년 태인 군수로 임명되었다가 1909 년 금산군수가 된 홍범식은 1910 년 8 월 29 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자 객사 안의 벽에 "나라가 멸하고 임금이 없어지니 죽지 않고 무엇하리 (國破君亡 不死何爲) "라는 유언을 남기고 순절하였다. 부친의 순절은 벽초에게는 평생 충격이어서 그의 사고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홍범식이 홍명희에 남긴 유언은 다음과 같다.

>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잡기에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노의 수치와 설움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피치 못해 가는 길이니 내 아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조선사람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여 잃어진 나라를 기어이 찾아야 한다. 죽을 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13]

홍명희는 『대한흥학보』에 실린 「일괴열혈」에서도 주장하고 있듯이 민족 내부의 분열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임꺽정』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붕괴되어 가는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은 임꺽정 화적패가 활동했던 새로운 유형의 정치영역의 붕괴로 이어진다. 불행하게도, 조선의 정치적 생명을 박탈하는 일본에 대한 홍범식의 저항은 집안의 영락으로 이어진다. "조선왕조와 서구적 논리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야욕이 충돌하는 지점에 그의 부친 홍범식이 서 있는데 그의 죽음은 조선 왕조 해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자 비극의 상징이었다" (김승환 1998, 290) .

마른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듯이, 붕당으로 붕괴된 정치질서는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 이러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맞서려는 투쟁은 죽음을 초래하지만 다른 유형의 삶을 가능케 한다. 홍범식이 벽초를 통해 조선인의 저항정신을 드러내고 있듯이, 벽초는 비극의 운명을 맞이한 임꺽정을 통해서 조선의 정조를 드러내고자 했다. 화적패의 우두머리인 임꺽정이 비극의 영웅으로 묘사되듯이, 벽초는 제국주의 시대 비극적 운명을 맞는 조선을 임꺽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벽초는 이러한 비극적 운명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조선의 정조이다.

Ⅲ. 망명 지식인의 고뇌와 우정 (1912~1918)

홍명희는 부친의 순국 이후 괴산과 서울을 왕래하다가 삼년상을 마친 후 "영영 고토를 작별하고 타국을 나가노라"는 편지를 남기고 중국으로 떠났다. 홍명희가 출국하여 귀국하기까지의 행적은 잘 알려진 바가 없기에, 이 기간 동안 홍명희의 행적은 동제사를 중심으로 망명 지식인들과 유지했던 교유 관계, 그리고 남양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여기서는 망명 기간 중 홍명희의 활동을 귀국 이후 활동과 연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정신적인 고뇌, 그리고 개인적 · 정치적 우정과 인간성을 부각시킨다.

홍명희가 부친 홍범식의 3년 상을 치루고 편지만 남긴 채 가족을 떠나 홀연히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1912 년부터 방랑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향하던 1918 년까지의 기간은 제국주의 시대로서 세계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1884 년에서 1914 년에 이르는 30 년은 아프리카 쟁탈과 범민족 운동의 탄생으로 끝난 19 세기와 제 1 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된 20 세기를 갈라놓은 분기점이다" (아렌트 1951, 123) . 이 시기 제국주의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후발 제국주의 세력인 일본은 경제적 팽창과 정치적 지배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을 합병하였으며 제 1 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계기로 중국 진출의 기반을 굳혔다.

상하이의 망명객들! 강영주가 홍명희 전기에서 표현한 문구이다. 식민지 시대, 특히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조선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상실감을 경험하였다. '망명객'이란 문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치적 삶을 영위할 수 없었기에 조국을 떠난 조선인들은 무국적자로서 "뿌리 상실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실감은 정신적 방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계인의 정신 상태를 표출하기도 한다. 식민지화 이전 조선 사회에서 주류에 속하고 있던 전통적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는 식민지 세력에 동조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벼락 출세자

(parvenu) 의 심리적 성향을 드러냈지만, 다른 일부는 변화된 세계를 거부하고' 한계인 (pariah) 의 심리적 성향으로 무장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홍명희는 경술국치와 조선의 사멸, 부친의 순국과 집안의 비극으로 이중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은 자신의 상실로 이어진다. 홍명희는 이러한 상실감 때문에 부친의 삼년상을 끝낼 때까지 서울과 고향을 왕래하는 것 이외에 거의 운둔 생활을 하였다. 벽초의 심경은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나고 있다.

> "합병만도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한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크나큰 타격인데 약한 마음을 자애로 어루만져주고 약한 몸을 자애로 휩싸주던 우리 아버지가 합방 통에 돌아가셨다. 나는 온 세상에 별안간 칠통 속으로 들어간 듯 눈앞이 캄캄하였다. 천붕지탁 (天崩地坼) 이란 당고 (當姑) 한 사람들 흔히 쓰는 문자가 나에게는 문자 그대로 사실인 듯하였다. 나라가 망하고 집이 망하고 또 내 자신이 망하였으니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죽는 것이 가장 상책일 줄 믿으면서도 생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었다. 죽지 못하여 살려고 하니 고향이 싫고 고국이 싫었다. 멀리멀리 하늘 끝까지 방랑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이 소원이었다."[14]

멸망한 국가와 집안은 대마장일 것이다. 대마장은 살아 있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그곳에서 삶의 의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식민지 시대 정치는 소멸되고 식민주의 세력의 관료적 지배만이 존재하기에 정치공간은 소멸되었다. 임꺽정의 화적패는 백성과 천민에 대한 온갖 폭정이 난무하는 공간에서 삶의 기회를 갖기란 어렵다고 생각하고 청석골로 들어간다. 벽초의 중국 망명과 임꺽정의 청석골 '망명'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홍명희는 부친의 순국 이후 삼년상을 치룬 1912 년 고향을 떠나 상하이, 난징, 남양 등을 '방랑'하다가 1918 년에 귀국하였다. 당시 상하이와 난징은 중국혁명의 근거지여서 한국, 인도, 베트남 등 각국의 민족해방운동가들이 활동하던 무대였다. 1910 년대 전반에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단체는 동제사와 신한청년당이다. 1913 년 상하이에 도착한 홍명희는 동제사에 참여하였던 신규식 · 박은식 · 신채호 · 조소앙 · 문일평 · 김규식 등 망명 지식인들을 만났다. 동제사는 동주공제 (同舟共濟;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피안에 도달하자) 란 명분을 내세웠으나 국권회복을 목표로 하는 독립운동 단체이다 (김희곤 1984, 175-6) . 동제사에 참여하였던 망명 지식인들이 사멸한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존재론적 좌절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명희가 교유했던 망명 지식인들의 정신적 고뇌와 활동은 홍명회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관 (睨觀) 신규식 (申圭植, 1879～1922) 은 을사조약에 항의하여 의병을 일으키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1911 년 3 월경 상하이로 망명하여 신해혁명에 참가한 후 해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제사를 결성하였다. 동제사가 조직되기 직전 상하이에 도착한 백암 (白巖) 박은식 (朴殷植, 1859～1925) 은 국내에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망명으로 상하이 독립운동가들에게 대단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단재 (丹齋) 신채호 (申采浩, 1880～1936) 역시 동제사

를 이끈 중심인물로서 국혼적 국사관의 확립과 계몽에 힘썼다. 1913 년 상하이로 망명한 소앙 (素昂) 조용은 (趙鏞殷, 1887～1958) 역시 동제사의 중심인물로서 이때 육성교를 제창하였다.

여기에서 국가의 사멸로 방황하던 망명 지식인들은 이러한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철은 1909 년 1 월 단군교를 개창하였다고 이를 대종교(大倧敎)로 개칭하였다. "신규식은 대종교 신자로서 조완구 (趙琬九) [15] · 김백련 · 백순 · 박찬익 · 정신 · 신채호 · 박은식 · 조소앙과 더불어 상하이에서 대종교를 이끌어 갔다" (김희곤 1984, 177) .

이광수가 1913 년 상하이에 도착하였을 때, 문일평 · 조소앙 · 홍명희는 공동으로 기거하고 있었다. 춘원은 후일 자신의 전집에서 홍명희의 호 '가인'과 조용은의 호 '소앙'에 대해 언급하였다. 호를 '가인'으로 지은 것은 홍명희가 바이런의 희곡 『카인: 신비극』을 탐독하고 난 이후이다. 홍명희는 이 희곡에서 무엇에 주목했는가?

벽초의 정신적 고뇌는 일본 유학 시절에 잘 나타나고 있다. 벽초는 바이런의 '카인'을 통해 정신적 저항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다. 카인은 고독하고 사색적이며 음울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이론적 영웅으로서 순응하기를 거부한 자유주의자였다 (이혜경 1996, 276) . "영국 낭만주의의 마지막 세대에 속하는 바이런은 그 시대 청년층의 급진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정치적 압제를 규탄하는 이상주의를 노래하기도 했지만... 그의 시에 흔히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개인의 도덕적 요구와 사회적 인간 간의 충돌로 인해 영원히 정치적 안주처를 상실한 방랑자이다" (강영주 1999, 46) .

홍명희는 1913 년 상하이에 도착하여 문일평, 조용은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때 조용은은 코오란을 읽고 있었다. 조용은이 소앙 (蘇昂) 이란 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소앙은 '야소 (耶蘇) 가 내라'는 뜻이다. 소앙은 민족의 사멸로 인한 정신적 좌절을 육성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는데, 홍명희는 이러한 조용은의 정신적 고뇌를 공유하였을 것이다.

동제사는 독립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교육에 주력하여 1913 년 12 월 17 일 상하이 명덕리에 박달학원을 설립했다. 박은식 · 신채호 · 홍명희 · 문일평 · 조소앙, 그리고 중국인 눙주(農竹) 와 미국 화교 마우따웨이 (毛大衛) 등이 이 학원의 지도 교수였다 (김희곤 1984, 182) . 동제사의 지도자들은 1914 년 대동보국단 (大同輔國團) 을, 그리고 이듬 해 신한혁명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홍명희는 1914 년 11 월 상하이를 떠나 남양 (南洋) 으로 항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단체들에 참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벽초는 상하이 시절 문일평과 재회하였고, 동제사 총재인 박은식을 만났다. 벽초는 또한 정인보 모자를 만났다. 홍명희는 정인보와 함께 난통저우에 머물던 창강 김택영을 방문했는데, 김택영은 「홍범식전」에서 홍명희에 대해 "외모는 비록 온순하나 내심은 실로 강개막측 (慷慨莫測) 하였으니, 이는 아마 노상에서 굶어죽을지언정 차마 원수놈의 나라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다는 뜻이리라" (강영주 1999, 97) .

망명자들과의 우정은 이후 홍명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홍명희는 1917 년 3 년 동안의 남양생활을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와 정원택과 함께 『조선사』를 집필하던 단재 신채호를 방문하였다. 특히 홍명희는 신채호와 우정을 귀중하게 생각했다. 홍명희는 「화적편」 '청석골' 장을 마치고 집필을 중단하였던 시기인 1936 년에 단재가 무정부주의 비밀결사사건으로 10 년형을 선

고받은 후 여순 감옥에서 옥사한 소식을 들었다. 홍명희는『조선일보』에 발표한 「곡 (哭) 단재」에서 삶과 죽음의 역설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살아서 귀신이 되는 사람이 허다한데 단재는 살아서도 사람이고 죽어서도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한줌 재가 되다니, 신체는 재가 되더라도 심장이야 철석과 같거나 재가 될 리 있을까. 그 기개 그 학식을 무슨 불에 태워서 재가 될까. 모두가 거짓말 같고 정말 같지 아니하다."[16]

벽초는 "친일하여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 아버지의 순절로 경험한 상실감은 단재의 죽음에서도 재현되었을 것이다. 벽초는 단순한 삶이 인간다운 삶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벽초는 단재를 애도하는 글에서 간접적으로 이 시기에 친일로 전향한 지식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홍명희는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인 1914 년 11 월 상하이를 떠나 남양으로 향하였다. 일본은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독일군 요새가 있는 청도를 점령함으로써 중국 진출의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때 동남아시아 화교들은 배일운동의 선봉에 서서 일화 배척운동을 벌였다. 홍명희는 남행길에 김덕진 · 정원택 · 김진용과 함께 하였다.

정원택 (1890～1971) 은 홍명희의 고향과 가까운 음성 출신으로서 동제사에서 활동하고 박달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대한독립의군부 조직에 참여하였고,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김진용은 일본 유학 시절 홍명희와 함께 대한흥학회에서 활동하였으며, 남양에서 귀국한 이후 국내 임정 요인으로 활동하였고, 유럽과 각국에서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하다가 1946 년에 귀국하였다. 정원택은『지산외유일지』에서 벽초가 상하이를 떠나 남양으로 향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벽초 · 단정 · 동성 및 네 사람이 모여서 남양군도로 떠나자고 결의하였다. 이 여행은 벽초가 제창하고 3 인이 동의하여 동반하기로 하였다. 이 동기는 중국 광복 전후에 운동자금이 남양의 화교 중에서 많이 염출되었으므로, 우리도 재원이 풍부한 남양에 광복운동의 자금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는지 답사코자 함이었다." (정원택 1983, 104)

홍명희는 남양 각지에서 중국인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함으로써 방랑 체험을 통해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곳에서의 활동에서 큰 결실을 이룬 것 같지는 않다. 홍명희는 1917 년 12 월 3 년간의 남양 생활을 청산하고 상하이로 돌아왔고, 1918 년 평텐에서 아우인 홍성희와 만나게 되어 해외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게 된다. 귀국 동기는 제대로 조명되고 있지 못한데, 벽초는 '방랑하는' 망명자들의 투쟁에서 귀중한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임꺽정의 화적패가 청석골을 삶의 공간으로 삼았으나 지옥과 같은 세계와 단절할 수 없었듯이, 벽초 역시 대마장과 같은 조선과 단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벽초는 삶 자체가 비극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이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죽음의 세계를 삶의 세계로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귀국했을 것이다. 후술하듯이, 벽초는 국가 · 집안 · 개인의 '죽음'에 대한 비극적 인식

을 통해 현실주의적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벽초의 방랑과 고뇌는 귀국 이후 민족해방운동과 집필 작업으로 승화된다.

따라서 벽초의 삶과 사상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예를 통해 우회적으로 소개한다. 소포클레스는 자신의 비극 삼부작에서 오이디푸스를 비극의 영웅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소포클레스는 시켈리아 원정에 참여하였다가 시민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해외 추방으로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아테네가 스파르타 동맹에 패배한 후 귀국하여 비극 3부작을 집필하였다. 오이디푸스는 의인화된 아테네일 것이다. 반면에, 투키디데스 역시 칼키디케 전투에서 패배하여 추방형을 받고 오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아테네 패망 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완결했다. 아테네는 비극의 영웅이다.

벽초는 『임꺽정』을 통해 비극의 영웅을 형상화하고 있다. 조선조 사회현실의 모순을 깨닫고 관군과 투쟁한 임꺽정은 저항하는 인간이며 또한 비극적 영웅으로 묘사된다.「의형제편」과 「화적편」에서 의형제와 화적은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과의 투쟁에서 패배한 조선은 또한 비극의 영웅이 아닌가? 홍명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의 영웅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가? 구월산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다가 결국 궤멸하는 이야기는 식민지 시대 독자들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일본인들을 기쁘게 하는가? 후자는 아닐 것이다. 즉 민족의 비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정신적 방황 속에서 찾은 귀중한 교훈은 저항 의지를 가능케 하는 조선의 정조일 것이다.

Ⅳ. 민족해방운동과 민족협동전선: 3·1 운동, 문예운동, 신간회운동 (1918~1928)

해외 망명생활을 마치고 괴산으로 돌아온 홍명희는 고종의 인산을 배견 (拜見) 하고자 상경하여 서울 체류 기간 중에 대규모 민중시위를 목도하였다. 홍명희는 이에 영향을 받아 만세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심한 채 3 월 15 일 귀향하여 후일 신사상연구회와 화요회에서 같이 활동할 이재성, 그리고 괴산군 소수면 서기였던 김인수 등 지역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만세운동을 모의하였다.

무엇보다도 홍범식의 순절에 큰 충격과 영향을 받았던 집안 식구들인 홍용식 · 홍태식 · 홍성희 등이 괴산 만세사건에 동참하였다. 3 월 19 일 괴산 장날에 괴산면에서 최초로 만세사건이 일어난 후 충북 각지에서 만세시위가 있었고, 3 월 24 일과 3 월 29 일 괴산 시장에서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만세사건 주모자들인 홍명희 · 홍성희 · 구창희 · 김인수 · 민광식 · 민담 등이 출판법 등의 죄목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홍명희는 옥고를 치루고 출옥한 이후 사회주의자들이나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지향한 민족해방운동의 노선을 분명히 선택함으로써 1920 년대에 실력양성론이나 자치론을 내세운 민족개량주의자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길을 걸었다“ (강영주 1999, 143) .

홍범식의 순절, 홍명희의 방랑, 만세시위 참여와 투옥으로 벽초의 집안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출옥 후 벽초는 대가족을 이끌고 서울로 상경하였다. 이후 홍명희는 교육계와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사회활동을 하였다. 벽초는 1924 년 동아일보사 취체역 주필 겸 편

집국장에 취임하면서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벽초는 언론활동에 있어서 민족개량주의 노선과 거리를 두었다.

벽초는 아우인 홍성희, 죽마고우인 이관용, 신사상연구회 창립회원인 구연흠과 이재성과 함께 동아일보사에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요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박헌영 · 임원근 · 허정숙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그러나 김성수가 사장이 된 이후 벽초는 신문사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자 시대일보로 자리를 옮겨서 시대일보를 민족지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에 따라 시대일보는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와 더불어 3 대 민족지의 정립시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시대일보가 자금 확보에 실패하여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면서 신문사 일에 손을 떼고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이와 같이 벽초는 언론인과 교사로서 사회운동을 시작했지만 민족운동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이때 지식인들은 정세 변화에 직면하여 다양한 노선을 걷기 시작하였다. 민족운동은 일제치하에서의 실력양성과 자치를 추구하는 민족개량주의 노선, 일제와 타협을 거부하고 절대독립론을 주장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으로 분화되었다. 전자의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광수· 김성수 · 송진우 · 최린 등이었고,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석우, 안재홍, 권동진 등이었다.

홍명희는 민족해방운동의 돌파구로서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갖고 급진적 지식인들의 사상단체인 신사상연구회 · 화요회 · 정우회에 참여하여 회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신사상연구회에는 조봉암 · 박헌영 · 임원근 · 김단야 등 사회주의 운동단체의 경험을 쌓은 청년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신사상연구회는 화요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사회주의 단체는 서울파, 화요회, 북풍회로 나뉘어졌는데 이후 정우회로 발전하였다. 홍명희는 홍성희와 함께 정우회 회원으로도 계속 활동하였다.

이때 홍명희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조선사정조사연구회 (朝鮮事情調査硏究會)에 참여하였다. 이 학술단체에는 백남운 · 백관수 · 김준연 · 안재홍 · 이극종 · 한건위 · 조병옥 · 이관용 · 홍명희 등이 참여하였다. “조선사정조사연구회는 사상적인 편차가 큰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일부는 민족개량주의 노선을 따르고 일부는 사회주의 운동을 지향하였지만, 대다수는 비타협적인 민주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1927 년 신간회가 결성되면서 내부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들 가운데 김준연 · 안재홍 · 한건위 · 조병옥 · 이관용 · 홍명희 등 다수는 신간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강영주에 따르면, 홍명희가 조선사정조사연구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명희는 조선에는 조선의 역사가 있고 독특한 민족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선의 현실을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민족정신의 보존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학창산화』나『임꺽정』에 잘 드러나고 있다. 둘째, 조선사정조사연구회는 민족통일전선을 추구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셋째, 홍명희는 신간회 결성 이전부터 이미 좌 · 우 진영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추진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지니고 있었다.[17]

이때 홍명희는 조선 문단에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던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KAPF) 과 일정한 관계를 맺었다. 홍명희는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화요회와 같은 사회주의 단체에 회원

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카프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다. 카프의 기관지인 『문예운동』은 1926년에 창간되었다. 홍명희는 이상화 · 김복진 · 조명희 · 이호 · 박영희 · 김기진 · 이서해 등과 더불어 창간호의 집필자였다. 홍명희는『문예운동』제2호의 발간 이후 신간회 활동에 전념하였다.

홍명희는 민족해방운동이 분열되고 연정희가 부활을 기도하는 상황에 민족협동전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27 년 1 월 29 일 권동진 · 김준연 · 문일평 · 신석우 · 신채호 · 안재홍 · 이관용 · 이승복 · 한기악 · 한용운 · 한위건 · 홍성희 등 28 인의 명의로 신간회 발기를 정식 공표하였다. 홍명희는 당시 좌우 양대 진영에 모두 관여하고 있었기에 민족통일전선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신간회 운동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의 민족협동전선 운동의 첫 시발로서 의의가 크다"(정윤재 2010, 150). 신간회 결성에 관한 일제 관헌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당시 우연히 평안북도 정주 소재 오산학교 교사인 홍명희는 동기 휴가를 이용하여 경성에 와 최남선을 방문했던바, 최남선으로부터 그들의 의중을 전해 듣고 함께 자치 문제를 토의하느라 밤을 샌 일이 있음. 다음날 홍명희는 안재홍을 방문하고 신석우를 초치하여 대책을 협의한 결과, 급속히 참다운 민족당을 결성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 북경에 있는 신채호로부터 그의 찬동을 얻어 발기인에 참가시키고, 당국과 접근성을 띤 신석우를 개재시켜 표면상 그 양해를 얻고 '신간출고목 (新幹出枯木) 이라는 말에서 취하여 신간회란 명칭하에 소화 2 년 2 월 15 일 그 창립을 함."[18]

창립대회는 1927년 2월 15일 서울 종로 기독교청년회관 대강당에서 25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총독부가 '신한회 (新韓會) '라는 조직의 명칭을 인정하지 않자, 벽초는 '신간출고목 (新幹出枯木) '이라는 고사성어에 착안하여 신간회라는 명칭을 제안하였다. 벽초는 '마른 나무'로 비유되는 조선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신간회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전통이 국가와 사상의 근간이 된다"는 신념에서 조선의 정조 (情調) 를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했다.

신간회의 활동은 집행부의 성격에 따라 제1기는 1927년 2월 15일에서 1929년까지이고, 제2기는 1929년 6월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 이후 1929년 12월까지이다. 제3기는 1929년 12월 민중대회사건 이후 1931년 5월 16일 해소까지이다. 홍명희는 제1기에 조직부 총무간사를 맡음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를 주도하였다. 1928 년 2 월에는 신간회 지회가 전국 각지에 123 개, 회원도 2 만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신간회 등장으로 조선의 사상운동 단체들이 단일 세력으로 결집되기에 이르렀다.

1929 년 2 월 15 일 창립 2 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으나 종로서는 3 월 정기대회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6월 28일과 29일 수개의 지회가 합동으로 대표 1인을 선출하여 파견하는 약식의 복대표대회가 개최되었다. 임원 개선 결과는 홍명희에게 큰 타격이었다. 복대표대회 이후 신간회는 일제 당국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이 시기 신간회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적인 반일시위로 확대하기 위한 민중대회 추진이었다. 이 사건으로 허헌 · 홍명희 등 신간회 간부 40 명이 검거되었다.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홍명희를 포함한

11 명을 보안법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석방되었으나, 허헌 · 홍명희 · 이관용 · 조병옥 · 이원혁 · 김무삼 등 6 인은 기소되었다.

민중대회 사건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신간회 내부에서 본부의 노선 변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신간회 경성지회는 본부의 타협적 노선을 공격함에 따라 본부와 지회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였다. 홍기문은 본부의 타협적인 노선을 공격하였다. 1930 년 12 월 부산지회 정기대회에서 신간회 해소론이 처음 제기된 이후, 신간회 해소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신간회 본부는 해소론을 저지하고자 1931 년 5 월 16 일과 17 일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창립대회 이후 처음 열린 전국대회에 참가한 대위원 다수가 해소파였다. 임원 선출 이후 해소 문제가 상정되고 표결을 거친 결과, 해소안은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와 같이, 홍명희는 상하이에서 귀국한 이후 민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잘 보여주었다. 사멸한 조선인 '마른 나무'에서 새로운 국가인 '가지'를 생기게 하는 노력은 바로 민족협동전선에 기초한 공동 투쟁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의 형성이라는 행위 목표는 이 시기 홍명희의 실천에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실천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홍명희는 1926 년 10 월 오산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신간회 운동에 전념하였는데, 그의 가족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을 겪고 있던 홍명희는 안재홍의 권유로 1928 년 11 월부터 『조선일보』에 역사소설 『임꺽정』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생활을 떠난 문예는 생활의 문예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임꺽정』에 강하게 반영하였다. 홍명희는 신간회 제 1 기에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을 연재하였다.「의형제편」과 「화적편」은 출옥 이후 연재되기 시작했다. 홍명희는 '신간고출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행위로 민족협동전선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실천적 지혜는「의형제편」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강영주의 해석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 "의형제편의 구성과 문체, 인물의 형상화, 대화 및 디테일 묘사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의형제편」은 『임꺽정』이 지닌 사실주의적이자 민중적이며 민족문학적인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는 시대적 한계에 부닥친 작가가 신간회운동 당시와 같이 민족의식 · 민중의식의 정치적 실천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그러한 의식을 창작을 통해서나마 구현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이다." (강영주 1999, 289-290)

벽초는 망명 생활과 민족독립운동 참여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였다.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벽초의 관심 또한 지대했다. 벽초는 민족협동전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좌우를 넘어서 같이 활동했던 인사들과 깊은 '우정'을 유지하고자 했다. 『임꺽정』의 저변에 깔려 있는 조선 정조 역시 민족애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이러한 우정은 「의형제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벽초는 어두운 시대에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공영역으로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애를 실천하였다.

Ⅴ. 이야기하기와 정치적 저항(1928~1940)

이야기하기는 역사 속에 켜켜이 쌓이는 사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언어행위로서 인간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인간적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하기는 정신적 측면에서 기존 질서를 단순히 수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에 당연히 저항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야기하기는 식민지 시대 작가에게는 다른 표현 기법을 요구하게 된다. 식민지 작가는 현실 세계와 민족정서를 표현하고자 알레고리 기법을 사용한다. 이것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저것을 표현하기에, 이러한 이야기는 이중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식민지 작가 홍명희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이다. 그리고 임꺽정의 운명 또한 조선의 운명일 것이며 조선 독자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일 것이다. "그의 소설쓰기는 공적 영역에 대한 저항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민족적 알레고리가 성립한다" (김승환 2009, 160) . "홍명희는 원래 문학과 정치를 상호 유기적인 차원에서 생각했던 사람이다"(채진홍 2000, 117) . 따라서 여기서는 홍명희가 『임꺽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저항행위 및 조선의 정조와 관련한 몇 가지 입장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벽초는 작품에 많이 드러나는 폭력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밝히고자 했는가? 청석골 화적패는 관료나 일반인에 대해 적나라한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관료 집단에 대한 폭력은 권력의 실종과 권위 상실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관료가 아닌 백성에 대한 폭력 사용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식민지 시대 화적패의 폭력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식민지 세력에 대한 폭력 사용의 정당화를 의미한다. 조선 시대 부패한 조정과 관료에 대한 폭력 사용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패한 조선사회의 모순, 민족적 정체성의 약화라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반정 · 사화 · 옥사로 이어지는 시대에 양반들의 대립과 갈등은 정치영역에서 대립과 갈등의 정치만이 드러날 뿐 조화와 화해의 정치는 존재하기 어려웠다. 화적패의 폭력은 당시 변형된 형태의 정치권력이다.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의 정치는 소멸되고 억압과 지배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벽초는 화적패의 폭력을 통해 폭력 투쟁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둘째, 청석골은 화적패의 소굴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공간인가? 식민지 시대 정치는 소멸되고 식민지 세력의 관료적 지배만이 존재한다. 정치공간은 소멸되었다. 여기에서 저항과 연대를 도모하는 정치영역과 억압공간의 대립구도가 부각된다. 「화적편」 제 1 권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청석골은 새로운 폴리스이며, 도회청은 아고라나 피닉스와 같다.

> "이튿날 아침에 여러 두령이 도회청에 모여서 자리를 잡고 앉은 뒤에 와가가 좌중을 돌아보고 '자 우리 대장을 뽑을 공론들 하세'하고 말을 꺼내고 다시 '공론할 것 무엇 있나, 임두령을 우리 대장으로 뫼시지."

"이것은 새로 정한 절차니 도회청 석차와 조사 절차만으로도 대장의 위풍이 나타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장이 여러 두령과 공론하고 싶으면 공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사관 하나만 데리고 공론하고 .... 대장의 권력은 그 위풍에서 더 지났다."

셋째, 벽초는 숨겨진 공간 (청석골, 자모산성, 광복산) 과 드러난 공간인 서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벽초는 노출과 은폐의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가? 중앙정부, 즉 조정이 있는 서울은 공적 가치, 인간다움을 상실한 죽은 공간이지만, 청석골은 저항정신이 살아있는 '인간다운' 공간으로 묘사된다. '가치가 전도되었다'는 알레고리적 표현은 정치질서의 왜곡과 연관된다. 따라서 신체의 눈에는 드러나지만 서울은 실질적으로 어둠의 공간이다. 식민지 시대 조선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 있었다. 일본은 식민 지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치적 생멸을 멸살하였기 때문에, 한양은 비유적으로 '대마장'이다. 그렇다면 임꺽정은 사멸한 공간인 한양을 왜 수시로 드나들었는가?

넷째, 벽초는 임꺽정의 여성 편력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무엇을 독자들에게 제시하려고 했는가?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임꺽정은 청석골의 아내 이외에도 서울에 기거하고 있는 세 여자를 '첩'으로 들인다. 그러나 임꺽정은 세 여인을 '첩'이 아니라 정실부인이라고 부른다. 임꺽정은 윤원형 댁의 하인이 가난한 양반집 홀어미의 외동딸을 겁박하자 박씨와 정식 부부의 연을 맺는다. 임꺽정은 또한 재상 원계점의 딸 원씨를 보쌈하여 자신의 정실로 삼는다. 임꺽정은 열녀를 기리는 집안의 과부 김씨와 인연을 맺는다. 여기에서 임꺽정의 여성편력은 저항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박씨 부인, 원씨 부인, 그리고 김씨 부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이들이 머무는 가정은 사적 공간이다. 임꺽정이 한양에 올 때마다 머무는 세 집은 과연 어떤 공간이었을까? 한양은 노출된 공간이지만 어둠의 공간이며 식민지 시대에는 억압의 공간이기도 하다. 벽초는 공공영역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 공공영역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세 부인의 집은 공공영역으로서 기능을 한다.

다섯째, 민족의 정신과 혼을 살리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전환하는 원동력이다. 벽초는 언어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국가가 부재한 시대에 국가를 대신할 민족어 (모어) 는 가장 시급히 성립해야 할 근대의 과제였다" (김정숙 외 2006, 353) . 문화와 정신을 구축하는 최고의 위상을 갖는다. 언어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전통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임꺽정』의 기저에 흐르는 '신간출고목'의 정신은 유진오와의 대담에 잘 드러내고 있다.

"인제는 모두 임꺽정의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기왕이면 남들이 잘 모르니까 끌을 것이고, 또 그쯤가 노호면 거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시비가 없스니까. 그러나 그 작품에 대해서 나대로 무슨 생각이 잇섯다면 그건 막연하게 남아 조선 정조나 그려볼까 한 것이지요. 하여간 한말로 한다면 조선의 자랑거리라는 것은 땅 속에 잇다고박게 말할 수 없습니다."[19]

홍명희는 『임꺽정』에서 민속언어를 통해 조선의 정조를 드러내는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어의 대수해 (大樹海) ”, “조선어휘의 일대 어해 (語海) ”, “조선어 광구 (鑛區) 의 노다지” 등 다양한 예찬에서도 나타나듯이, 벽초는 언어구사에 세심한 배려를 통해 조선의 정조를 드러내고자 했다. “독자들은 벽초가 만든 언어의 바다 속에서 민족적 동질감과 역사적 상황의 이해와 미감적 공감의 폭을 공유하게 되며 그 비밀이 바로 어휘에 있는 것이다” (이동희 2011, 48) .

Ⅵ. 마무리하기: 어두운 시대를 밝힌 지성

이 연구는 지성사의 맥락에서 식민지 시대 벽초의 생애와 사상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했기에 미완의 상태로서 보완을 필요로 한다. 벽초의 『임꺽정』이 근대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기에 그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이 글은 근대 지성사의 맥락에서 벽초의 삶을 조명하기 위한 문제의식과 틀을 제시하는 기초 작업이다. 따라서 연구 과정에서 부각시키려는 몇 가지 입장을 제시한다.

벽초는 국가의 사멸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극복하고자 민족해방운동의 기본 원칙으로서 민족협동전선을 평생 실천하였다. 즉, 벽초는 ‘신간출고목’의 정신에 입각해 식민지화된 세계와의 실천적 투쟁과 정신적 투쟁을 추구하였다. ‘조선의 정조’만을 강조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식민지 시대 민족 · 국가 · 가족의 ‘사멸(또는 죽음)’을 체험하면서도 이에 맞서려는 벽초의 의지와 행위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히려는 사람들은 위대한 지성이다. 그러나 위대한 지성이 곧 위대한 사상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벽초는 정치행위자와 작가로서 언행일치를 일관되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어둠에 빛을 밝히고자 분투하였다. 따라서 벽초는 개량주의적 지식인들과 달리 자신이 살던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으며 결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모험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에 대한 깊은 우정으로 나타난다. 벽초는 부친의 유언을 평생 간직한 채 때로는 가족에 대한 무관심으로 때로는 깊은 배려심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영역과 문학영역을 넘나들면서 인간애 (humanitas) 를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벽초의 『임꺽정』「의형제편」에서 화적패의 ‘의리’에만 주목할 것인가? 벽초는 이것을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저것을 말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조선의 정조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참고문헌

홍명희. 1985. 『임꺽정』. 서울: 사계절.

홍명희. 임영택·강영주 편. 1996.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 자료』. 서울: 사계절.

강영주. 1999. 『벽초 홍명희 연구』. 서울: 창작과비평사.

강영주. 2004. 『벽초 홍명희 평전』. 서울: 사계절.

김은경. 2004. 「모계인물모티브를 통한 홍명희의 『임꺽정』 다시 읽기: 저항담론적 성격 고찰 및 역사소설로서의 위상 재조명」. 『어문연구』 제 32 권 1 호.

김승환. 1998. 「벽초 홍명희의 문학사상」. 『민족문학사연구』 제 13 호.

김승환. 2009. 「홍명희의 창작방법으로서의 민족적 알레고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27 권.

김정숙 · 송기섭. 2006. 「홍명희와 『임꺽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33 집.

김희곤. 1984. 「동제사의 결성과 활동」. 『한국사연구』 제 48 집.

남윤수. 2001. 「《삼천리》 지에 실린 벽초 홍명희 관련 기사」. 『출판잡지연구』 제 9 권 1 호.

이동희. 2011. 『임꺽정과 서사문학 연구』. 전주: 디자인흐름.

이혜경. 1996. 「연극적 인물로서의 카인: 중세 순환극 아벨의 살해와 바이런의 카인: 신비극의 비교」. 『한국연극학』 제 8 권.

정원택. 1983. 『지산외유일지』. 서울: 탐구당.

정윤재. 2010. 「신간회운동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일고」. 『동양정치사상사』 제 9 권 2 호.

주강현. 2002.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과 풍속의 제문제: 1920 년대 후반 한국민속학 형성기에서 홍명희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 『역사민속학』 제 15 호.

채진홍. 2000. 「홍명희의 정치관과 문예 운동론 연구」. 『한국학연구』 제 12 집.

채진홍. 2001. 「홍명희의 창작관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47 권.

최명. 2004. 『벽초, 임꺽정 그리고 나』. 서울: 책세상.

최혜경. 2002. 「한국독립당과 우천 조완구의 활동」. 『문명연지』 제 3 권 3 호.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2010.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일산: 인간사랑.

한스 모겐소. 김태현 역. 2010.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 서울: 나남.

한영규. 2014. 「벽초 홍명희의 한시 비평: 「亦一 詩話」를 중심으로」. 『泮橋語文硏究』 제 36 집.

Arendt, Hannah. 1951.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 vich; 이진우 · 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2』. 파주: 한길사(2006).

* 이 논문은 2013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AKS-2013-KFR-1230002), 전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예컨대, 연구 저서로 채진홍(1996), 강영주(1996; 1999; 2004), 최명(2004), 이동희(2011)를 참조하시오.

2 이에 관한 연구로 주강현(2002)을 참조하시오.

3 홍명희, 「이조 정치제도와 양반사상의 전모」,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 자료』(서울; 사계절, 1996), 130 쪽.

4 홍명희, 「양반」,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 자료』, 116 쪽.

5 홍명희, 「이조 정치제도와 양반사상의 전모」.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 자료』, 131 쪽.

6 홍명희, 「이조 정치제도와 양반사상의 전모」. 132 쪽.

7 "그의 가계는 풍산 홍문의 추만공파로, 추만공파란 6 세조인 사정공 홍숙의 후손이 8 개파로 갈렸는데, 그 중 대사헌 홍영(洪靈)의 직손을 말하는 것이다"(남윤수, 2001, 29).

8 쉬파리는 해마다 생기건만, 한 번 간 내 어머니는 어찌 돌아오지 않는가?

9 홍명희, 「자서전」.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 자료』, 21 쪽.

10 "홍명희는 한시와 한시 문장의 창작에 능숙한 한문 지식으로서 면모를 지녔다. 실제 그는 20 여 편의 한시를 발표하였으며 『역실시화』 ... 등과 같은 역대 한시 비평문을 남겼다. 홍명희는 전통적 한문지식인이면서 근대 소설가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닌 작가라고 할 수 있다."(한영규 2014, 355)

11 이에 관해서는 최명(2004)을 참조하시오.

12 "수경과 무경은 이화여대전문부를 졸업하면서 부친의 자상한 지도를 받아서 각각 「우리 의복제도 변천에 대한 연구」, 「조선혼인제도의 역사적 고구」라는 제목으로 졸업논문을 썼으며,... 그러나 민속학사연구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주강현 2002, 115-6)

13 강영주(1999)에서 재인용함.

14 홍명희, 「내가 겪은 합방 당시」, 『서울신문』 1946 년 8 월 27 일자. 강영주(1999, 90)에서 재인용.

15 우천(耦泉) 조완구는 홍범식의 유일한 친동기인 홍정식(洪貞植)의 남편으로서 "홍범식의 영향을 받아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1914 년 단신 만주로 명명하여, 임시정부의 여러 요직을 거치며 중국에서 활동하였다"(강영주 1999, 365-6). 홍정식은 홍명희의 고모이다. 한국독립당의 핵심세력인 우천 조완구가 한국독립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최혜경(2002, 33-82)을 참조하시오.

16 홍명희, 「곡 단재」,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 자료』, 51 쪽.

17 "신간회운동의 중심에 서있던 위상이 말해주듯 그는 좌우편향에서 벗어나 있던 인물이며, 정치적으로 여운형노선이 존재한다면 문화적으로 또 하나의 홍명희노선이 존재하였던 것이다"(주강현 2002, 122).

18 강영주(1999), 203 쪽에서 재인용함.

19 이동희(2011, 40)에서 재인용함.